

트와이스, 마침내 '빌보드 200' 1위 겨냥... "美 팬덤 형성"

미니 13집 '위드 유-스',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정상 올라 K팝 걸그룹 3번째 '빌보드 200' 정상...K팝 그룹 8번째

K팝 간판 걸그룹 '트와이스(TWICE)'가 마침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1위를 겨냥하고 나섰다.

3일(이하 한국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트와이스가 지난달 23일 발매한 미니 13집 '위드 유-스(With YOU-th)'는 4일 공개 예정인 9일 자 '빌보드 200' 톱10에서 9만6000장 상당의 판매량으로 정상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된다.

K팝 걸그룹 중 '블랙핑크' '뉴진스'에 이어 세 번째다. 방탄소년단(BTS) '슈퍼매' '스트레이 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이티즈' 보이그룹 포함하면 K팝 그룹 중 여덟 번째다. 북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와이스는 사실 이미 해당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을 만큼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대전진이 좋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내놓은 미니 12집 '레디 투 비(READY TO BE)'는 '빌보드 200' 역사에서 한국 여성 가수 중 가장 높은 첫 주 판매량인 15만3000장의 기록을 썼다.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한 뉴진스 '겟 업'과 블랙핑크 '디 앨범'의 첫 주 판매량은 각각 12만6500장과 11만장이었다.

하지만 트와이스의 '레디 투 비'는 이 같은 성적에도 당시 첫 발매된 미국 컨트리 스타 모건 윌렌의 '원 싱 애어 타임(One Thing At A Time)'에 정상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원 싱 애어 타임'은 여전히 '빌보드 200' 톱10에 머물고 있는, 북미 차트에선 국내 톱 가수 임영웅 같은 존재다.

그런데 트와이스는 이번에 마침내 정상에 오르게 되면서, 뒤늦게나마 아쉬움을 덜게 됐다. '위드 유-스'가 예상대로 1위에 오르면, 트와이스 '빌보드 200' 톱10 진입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트와이스는 '빌보드 200'에서 2021년 11월 발매한 정규 3집 '포뮬러 오브 러브: O+T=3(Formula of Love: O+T=3)'로 3위를, 2022년 8월 발매한 미니 11집 '비트윈 윌엔투(BETWEEN 1&2)'로 역시 3위를 차지했다. 2021년 6월 발매한 미니 10집 '테이스트 오브 러브(Taste of Love)'로는 해당 차트 6위를 기록했다.

'빌보드 200'엔 K팝 걸그룹 최다인 일곱 번째 진입이다. 2020년 6월 발매한 미니 9집 '모어 앤 모어(MORE & MORE)'로 '빌보드

200' 200위를 차지하며 해당 차트에 처음 진입했고, 같은 10월 발매한 정규 2집 '아이즈와이드 오픈(Eyes wide open)'으로 이 차트 72위를 차지했다.

트와이스 멤버들은 솔로로도 '빌보드 200'에서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다. 재작년 트와이스 첫 솔로 주자로 나선던 나연이 솔로 미니 1집 '아이엠 나연(IM NAYEON)'으로 '빌보드 200' 7위에 올랐고, 지효는 작년 발매한 솔로 미니 1집 '존(ZONE)'으로 '빌보드 200' 14위를 차지했다.

트와이스가 '위드 유-스'의 타이틀곡 '월스파크(ONE SPARK)'로 미국 대중음악계 폴뿌리 인기의 상징인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추가 성과를 낼 지도 관심이 많다. 트와이스는 지난 2021년 10월에 발매한 첫 영어 싱글 '더 펄스'를 통해 '핫100' 83위로 처음 진입했다. 작년 1월 발매한 두 번째 영어 싱글 '문라이트 스타디움(MOONLIGHT SUNRISE)'로 '핫100'에 두 번째 진입하며 84위를 차지했다.

트와이스는 북미에서 '스타디움 아티스트'로서 콘서트 티켓 파워도 자랑하고 있다. 앞서 작년 6월 로스앤젤레스 스파이 스타디움, 7월 뉴욕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K팝 걸 그룹 최초 임성 및 매진' 기록을 썼다.

오는 16일에 상징적인 공간인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갖는다. 얼리전트 스타디움은 세계적인 팝스타들만 공연하는 장소로 그간 테일러 스위프트, 비연세 등이 공연했다. 지난달 미국 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NFL 슈퍼볼이 열린 곳이다. 스위프트가 우승컵을 들어올린 자신의 연인 트래비스 캘시(캘지스시티 치즈스)와 키스한 그곳이 맞다. K팝 그룹 중에선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에 이어 트와이스가 세 번째로 공연하게 됐다. 트와이스는 지난해 3월 K팝 여성 아티스트 최초로 '빌보드 위민 인 뮤직'(2023 Billboard Women In Music) 수상하기도 했다.

김도현 대중음악 평론가(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는 트와이스의 북미 음악 시장 인기에 대해 "2020년대부터 미국 시장 취향의 팝 싱글을 다수 공개하며 콘셉트 변화를 추구했고 미국 현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팬덤을 형성했다"고 봤다. "팬데믹 시기 형성

한 팬덤이 이후 월드 투어에서의 관중 동원으로 이어졌고 북미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다. 오래 활동하며 쌓은 커리어와 국제 시장의 인기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인기를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짚었다.

김성환 대중음악 평론가(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는 트와이스의 북미 시장에서의 인기는 꽤 다양한 요인이 혼재된 결과라며 "미국 시장에서 발표한 곡들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음악의 기반이라 할 미국 대중음악 속 펌킨 디스코/R&B 기반의 댄스 팝 사운드, 그리고 리듬이 복잡하지 않은 일렉트로닉 사운드, 쉬운 멜로디로 미국 힙 팝 세대에 거부감 없이 다가갔다"고 평했다.

아울러 앞서 북미 팝계를 장악한 방탄소년단처럼 안전한 이미지로 현지 시장에 진입한 부분도 인기 요인 중 하나로 주목된다. 트와이스는 색시함이나 '킬 크리스시' 면모보다 귀엽고 친근한 모습으로 현지 팬들의 환심을 샀다.

김성환 평론가는 "트와이스는 현재 미국 10대들이 듣는 주류 팝보다 일정 부분 '건진 하게' 다가가기에 미국 10대들의 부모님들을 안심시켰다"고 해석했다. 또 그는 뮤직비디오와 굿즈 콘텐츠를 통해 트와이스의 쉬운 안무가 편하게 소비될 수 있었기에 그 전파력이 빠를 수 있었다는 점도 짚으며 "또한 여성주의/PC주의 지향이 사회적으로 강해지는 미국 사회 속에서 1020 여성들에게 이들의 이미지는 '건강하게 소비할 수 있는 걸 파워'의 모델 중 하나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시상식에서 무대에 선 건 단순한 섭외력의 승리라고만 보기 어려운 이유"라고 부연했다.

트와이스의 인기는 북미 시장 뿐 아니라 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넓히고 있다. 전 세계 27개 지역 49회 규모가 예정된 다섯 번째 월드투어 '레디 투 비(READY TO BE)'의 일환으로 전 세계 9개 지역의 대형 스타디움 무대에 공연한다. 이미 지난해 11월 K팝 그룹 중 처음으로 호주 멜버른 마블 스타디움에서 단독 공연을 펼쳤다. 같은 해 말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 무대에 올랐다. 지난달엔 멕시코 멕시코 시티 포포 솔, 브라질 상파울루 알리안츠 파르키에서 현지 팬들을 만났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롤모델로 통하는 일본 내 인기는 여전히 압도적이다. 오는 7월에 일본 오사카 안마 스타디움 나가이, 해외 여성 아티스트 사상 첫 임성이 되는 가나가와 닛산 스타디움 콘서트를 펼친다. 특히 7만5000



석 규모의 닛산 스타디움엔 '동방신기' '세븐틴'에 이어 K팝 그룹 세 번째로 입장한다.

권위를 인정 받는 일본 공영 방송사 NHK의 대표 연말 가요 프로그램 '홍백가합전'엔 총 네 차례 출연했는데 지난해 말엔 팀 내 첫 유닛인 '미사모'(미나·사나·모모)가 출연하기도 했다.

2015년 데뷔한 트와이스는 그간 K팝 그룹 중 드물게 소속사 멤버 변동이 없었고, 특히 별다른 구설에도 오르지 않았다. 특히 멤버 간 돈독한 우정은 K팝계에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음반 '위드 유-스'에서 자신 있게 우정, 청춘을 키워드로 내세울 수 있었던 이유다.

모모는 앨범을 내면서 JYP를 통해 "아름 명의 우정과 청춘 그리고 윈스(팬덤)가 준 사랑도 담겨 있다.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순간들을 추억할 수 있는 앨범으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바랐다.

트와이스는 이런 점 등을 통해 신뢰를 주는 브랜드를 구축했다. 국내에선 친근한 이미지로 출발한 탓에 이들의 해외 팍시장 내 파괴력에 대해 지평가가 됐다. 현재 K팝 신을 이끄는 명실상부 주역 중 한팀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다. 내년 10주년을 맞는 만큼, 이들의 행보 하나 하나가 이제 역사가 될 수 있다.

투어스, 日 데뷔 전 '러브콜' 쇄도



그룹 '투어스'가 글로벌 대세 자리를 예약했다.

2일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투어스는 이날 일본 최대 패션 축제 '제38회 마이 나비 도쿄 걸즈 컬렉션 2024 S/S'에 초청받아 메인 아티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도쿄 걸즈 컬렉션'은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들의 스폰서 공연이 펼쳐지는 대형 행사로, 투어스는 이 축제를 통해 일본에서 첫 무대를 갖는다.

이들은 이날 일본 공영방송 NHK의 인기 음악 프로그램 '베뉴101'(Venue101)에도 출연한다. 특히 투어스의 출연 회차는 확대판으로 방송된다. 이날 방송에는 투어스를 비롯해 일본 인기 그룹인 더 램페이지(THE RAMPAGE), 넘버 아이(Number_1)와 K팝 그룹 에이티즈까지 총 4팀이 출연할 예정이다.

투어스를 향한 일본의 관심은 데뷔 전부터 남달랐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서 9년 만

에 선보인 보이그룹이자, K팝 인기 그룹인 세븐틴의 '동생 그룹'인 만큼 이들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주목도는 상당했다. 일본 유력 매체들도 투어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일찌감치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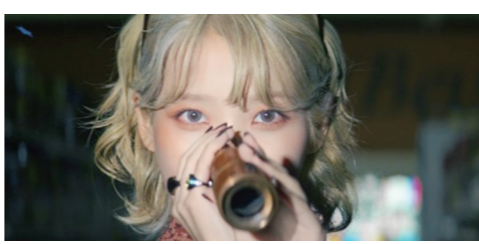
투어스는 데뷔 이전에 일본 유수의 잡지 '레이(Ray)' 3월호와 '비비(Vivi)' 4월호 표지 촬영을 진행했다. 레이와 비비는 투어스와의 만남을 위해

취재를 직접 한국에 파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특히 두 잡지는 투어스가 표지를 장식한 호를 특별판으로 발행했다. 특별판 표지는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스타들이 주로 장식한다.

일본 최대 민영방송사 후지TV도 투어스의 데뷔 현장을 담기 위해 다인원의 취재를 한국에 파견했다. 후지TV는 투어스의 데뷔 쇼케이스 현장을 단독 다큐멘터리로 제작, 오는 8일 오후 9시 자사 TWO 채널에서 방영한다. 후지TV에서 K팝 그룹의 한국 데뷔기를 단독 다큐멘터리로 다루는 것은 투어스가 처음이다.

투어스는 데뷔앨범인 미니 1집 '스파클링 블루(Sparkling Blue)'로 일본 오리콘 '데일리 앨범 랭킹' 1위(2월5일 자), '주간 앨범 랭킹'(2월5일 자/집계기간 1월22~28일) 3위에 올랐다. 타이틀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는 일본 라쿠엔 뮤직 '주간 랭킹'(집계기간 1월24~30일)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아이유, 새 월드투어 콘서트 첫날 게스트 '뉴진스'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이지은)가 새 월드투어 '2024 아이유 허 월드 투어 콘서트 인 서울(IU H. E. R. WORLD TOUR CONCERT IN SEOUL)' 포문을 힘껏 열었다.

3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와 대중음악계 등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그리고 9일과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KSPO DOME)에서 네 차례 열리는 콘서트는 팬덤 '유애나' 6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예매 첫날부터

유재석·양세찬·박명수·에스파 윈터 객석서 지켜봐

모두 매진됐다.

아이유의 단독 콘서트는 지난 2022년 여성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더 골든아워(The Golden Hour): 오픈지 태양 아래' 이후 약 1년6개월 만이다.

특히 첫날인 전날 콘서트엔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가 게스트로 등장했다. 온라인 등에 퍼진 영상을 보면 뉴진스는 히트곡 'ETA'를 선보였다. 그리고 뉴진스 멤버 해인은 자신이 피처링한 아이유 미니 6집 '더 위닝' 수록곡 '쉬(Shh)...' 자신의 파트 일부를 무반주로 들려주기도 했다. 뉴진스는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튜브 시어터에서 열리는 '2024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어워드(2024

Billboard Women in Music Awards)'에서 '올해의 걸그룹' 상을 받고 퍼포먼스까지 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음에도, 아이유와 인연을 생각해 기꺼이 게스트로 나섰다.

또 여러 목적답에 따르면, 같은 날 개그맨 유재석과 양세찬이 정장을 입고 객석에서 아이유 콘서트를 지켜봤다. 최근 두 사람이 진행하는 웹예능 '핑크고'에 게스트로 나온 아이유와 약속을 지킨 것이다. 역시 최근 아이유가 출연해 화제가 된 웹예능 '할명수의 진행자 박명수도 유재석·양세찬 옆에 후드티를 입고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별개로 그룹 '에스파' 멤버 윈터도 객석에서 콘서트를 지켜봐 연에게 내 아이유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영애, '아시아필름어워즈' 아시아영화엑셀런스 수상

배우 이영애가 '제17회 아시아필름어워즈' 아시아영화엑셀런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아시아영화어워즈아카데미(이하 AFAA)가 2일 밝혔다.

AFAA는 지난 2013년 홍콩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도쿄국제영화제가 아시아영화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설립한 조직이다. 매년 아시아필름어워즈를 개최해 아시아영화산업을 일구어 온 영화인과 그들의 작품을 기념하고 축하해 왔다.

아시아영화엑셀런스상은 아시아영화산업과 문화 전반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이룬 아시아 영화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영애는 영화 '공공경비구역 JSA'(2000), '봄날은 간다'(2001), '진정한 금자씨'(2005), '나를 찾아줘'(2019) 등을 통해 한국영화계 대표배우로서 자리매김했다. 최근 드라마 '마에스트라'(2023)에서 세계적인 여성 지휘자로 분해 호평 받았다.



뉴시스